

국립국악원·주일한국문화원 공동 기획전 개최

- 12.4.~3.16. 일본 도쿄에서 조선 진연을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 당시 궁중무용의 종목과 악기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소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 이하 국악원)과 공동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12월 4일(월)부터 2024년 3월 16일(토)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한국의 문화재 「임인진연도병(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543호, 제544호)」를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 ‘임인진연도병 속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 기획전(이하 전시회)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임인진연도병은 임인년(壬寅年, 1902년)에 고종이 51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입소하는 의식 절차 및 이를 기념하는 진연 장면을 그린 열 폭 병풍이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해 그 당시 진연의 절차 및 시대상황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당시 연행된 궁중무용의 종목과 악기편성 등 한국전통음악과 춤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임인진연도병풍과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악기와 복식, 그리고 조선조 문헌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음악과 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회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시용무보, 악학궤범 등의 자료 3점을 전시하고, 2부에서는 임인진연도병을 일렬로 펼쳐 소개한다. 3부에서는 임인진연도병에 등장하는 춘앵전, 가인전목단 등의 전통 무용을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4부에서는 임인진연도병에 등장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악기들과 복식 20여 점을 소개한다.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좀처럼 일본에서 소개되지 않은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한 역사 기록을 소개하고 국악만이 가진 독특하면서도 수려한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시회 행사 개요 및 홍보물, 주요 작품들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행사개요

- 전시회명 : 주일한국문화원·국립국악원 특별기획전
임인진연도병 속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
- 일 시 : 2023.12.4.(월) ~ 2024.3.16.(토) 10:00~17:00
 - * 개막식 : 2023.12.4.(월) 14:00~15:30
 -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26.(화)~1.6.(토)), 3.1(금)
- 장 소 :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1층)
- 주 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 내 용 : <임인진연도병>과 병풍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악기 14점, 복식자료 6점, 무용 영상 6점, 조선시대의 문헌 3점, 병풍 1점 등의 작품 24점과 영상 6점을 전시

□ 전시 홍보물 및 대표 작품

	
<p>행사 포스터</p>	<p>행사 전단지</p>



병풍에 등장하는 춘앵전(春鶯囀)과
실제 춘앵전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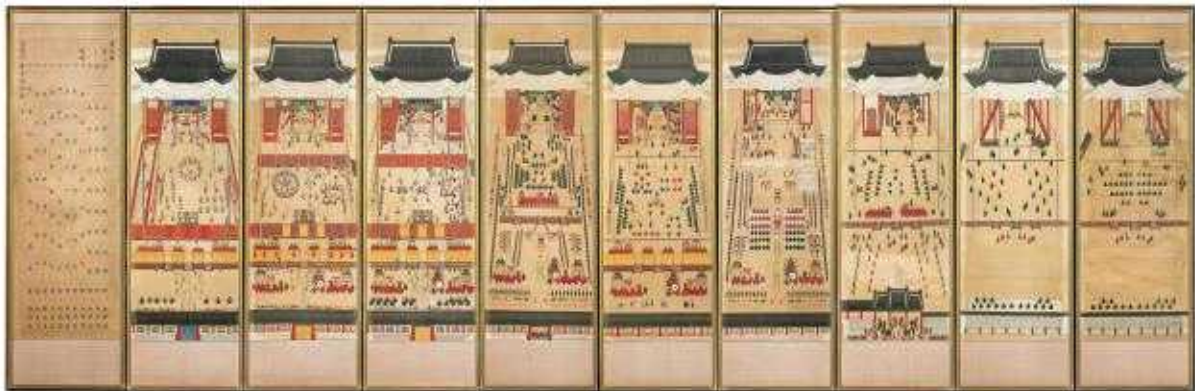
녹주의(綠紬衣)
박을 연주하는 악사가 입는 연주복



나각(螺角)
소라로 만든 관악기로 대취타와
불교의례 등에 사용된다.



시용무보(時用舞譜)
종묘 제사 때 추는 일무(佾舞)를 기록한
유일한 무보(舞譜)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543호, 제544호